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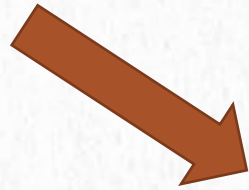
거울로서의 문학

한국모더니즘 문학 연구와 동아시아 담론

김예리 (강원대학교)

90년대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

동구권의 붕괴와 거대 서사의 몰락



새로운 진보 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담론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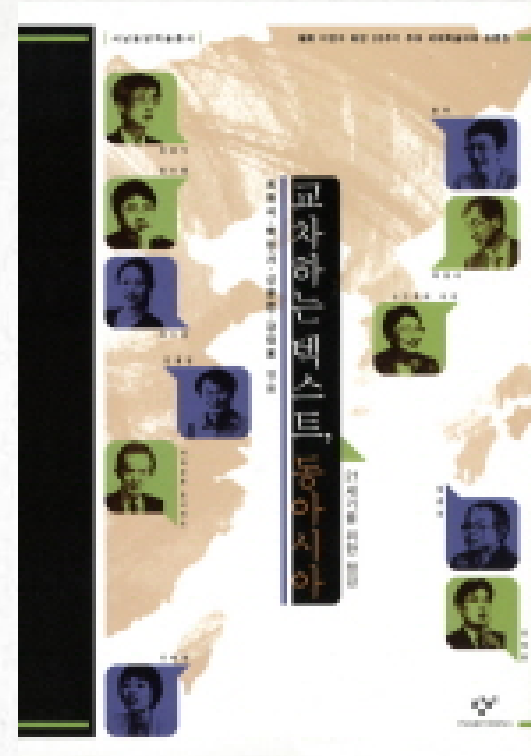
90년대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



『창작과 비평』 창간호
(1966년 겨울)



최원식,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2014)



『교차하는 텍스트』(2010)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2004)

근대 예술의 자율성과 제도로서의 문학

- 창작과 비평 vs 문학과 지성
- 카프(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 vs 구인회(九人會)
- 리얼리즘 vs 모더니즘
- 현실 vs 예술

구인회 (九人會 : 1933~1936)

- 30년대 한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예술 집단
- 구인회 회원: 李箱, 金起林, 朴泰遠, 鄭芝溶, 金裕貞 등의 9인
- 구인회 관련 참고 논문과 저서
 - 김민정, 『한국 근대문학의 유인과 미적 주체의 좌표』, 소명출판, 2004.
 - 조영복, 「이상의 예술 체험과 1930년대 예술 공동체의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 23, 2007. 12.
 - 신범순, 「1930년대 시에서 니체주의적 사상 탐색의 한 장면(1) - 구인회의 "별무리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구인회 (九人會 : 1933~1936)

- 구인회 관련 참고 논문과 저서

- Kim Yerhee, 'The Writing Community of Guinchoi: Time of the Eternal Recurrence', "KOREA JOURNAL" Vol 59 No 1 Spring 2019.

(한국학 관련 국제 학술지 Korea Journal에 수록된 논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https://www.ekoreajournal.net/main/index.htm>

근대 예술의 자율성과 제도로서의 문학



한국어로 번역된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풍경’, ‘내면’, ‘언문일치로서의 제도로서의 문학’

근대 예술의 자율성과 제도로서의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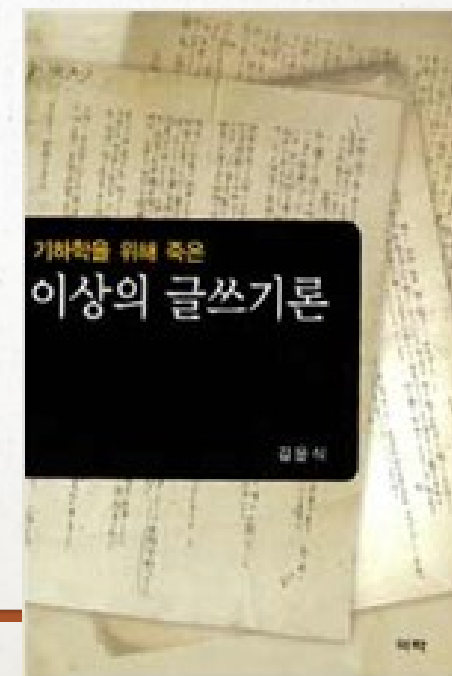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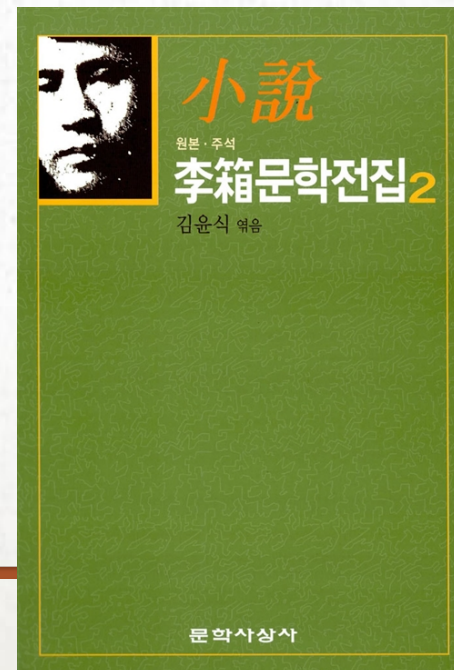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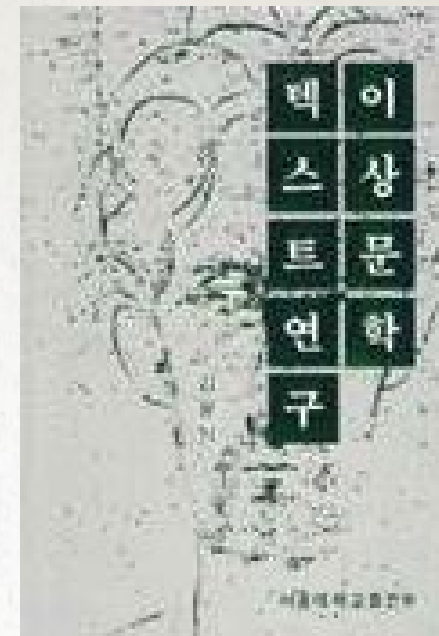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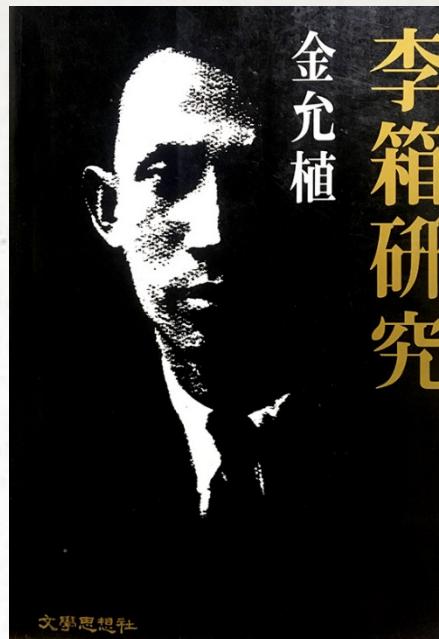


- 내면성과 예술의 자율성
- 리얼리즘 vs 모더니즘 대립 구도의 시작
- 보편적 형식이자 근대적 제도로서의 내면

근대 예술의 자율성과 제도로서의 문학

- 재현(representation) 담론의 탐색의 관점에서의 한국근대문학연구의 다양한 주제들
 - (국)문학이라는 개념의 역사
 - 민족 문학이라는 이념의 형성
 - 시 · 소설 · 희곡 · 수필 등의 장르(양식)의 형성과 분화 양상
 - 문학 개념 체계의 계보학적 탐색
 - 근대적 글쓰기의 성립 과정,
 - 근대적 주체의 내면의 성립과 내면의 표출 양상,
 - 근대적 표상의 탄생 혹은 기원

김윤식의 이상 연구



거울로서의 모더니즘

- 동아시아적 사유의 가능성

“예술이 예술의 형식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은 예술이 자신을 탄생시킨 질서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바깥에서 메타적으로 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술의 응시는 원근법적인 시선이 아니라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원근법적인 질서가 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삭제하고 왜곡시킨 요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시선이며, 그런 점에서 주체로 포섭될 수 없는 타자의 시선이다. 자기반영적이고 원근법적인 근대의 풍경이 타자를 주체의 질서 속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언제나 똑같은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면, 모더니즘 예술이 펼쳐보이는 타자의 풍경은 주체의 동일성을 해체하여 주체를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타자로) 변신시키는 마법의 거울이다.”

거울로서의 모더니즘

- 동아시아적 사유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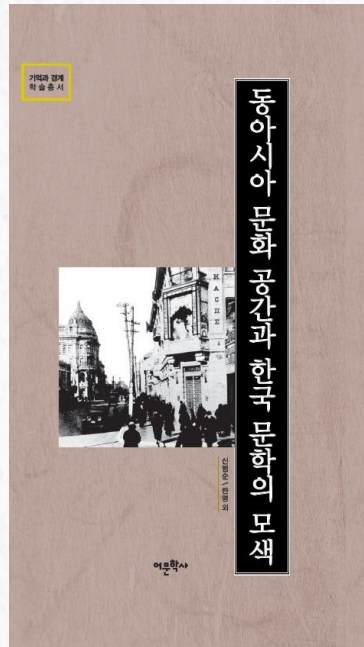
蘭明 (1955~2015)

중국 길림성 연길시 출생. 중국 동북사범대 중문계 졸업.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원 외국 문학과 일본 문학 연구 석사과정 수료. 동경대 대학원 인문사회 일본문화 연구 박사과정 수료. 중국 사회과학원 외국 문학연구소 연구원.

1988년 도일. 동경예술대 음악학부 객원 연구원. 동경대 문학부 외국인 연구원. 리쿄대 랭귀지센터 촉탁강사 역임. 일본 지센여자대 인간사회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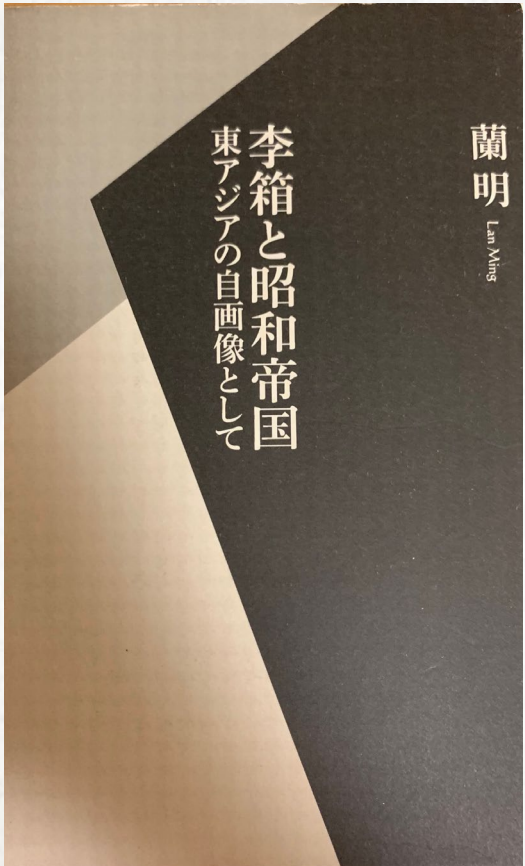
주요 저서로 『李箱的 越境과詩의 生成』(공저, 서울), 『李箱と昭和帝国—東アジアの自画像として』(동경), 주요 역서로 『李箱詩集』(동경), 『大岡信詩選集』(북경), 『蓬萊曲』(상하이)

蘭明의 동아시아 모더니즘 연구



- 「이상 <지도의 암실>을 부유하는 ‘상하이’」
- 「이상 <素榮爲題>와 요코미즈 리이치 朝鮮人像의 갈등 - <푸른 대위> 및 『상하이』를 중심으로」
- 「“여자의 눈”은 왜 찢어졌는가 - 이상과 전위영화 및 『詩と詩論』의 주변」
- 「지리’와 ‘역사’의 사이로 일어서는 ‘지(知)’의 초상 - ‘동아시아 문학’의 위상 또는 ‘세계 문학’의 행방」
- 「昭和帝國의 담론 공간과 李箱적 모더니즘 - 東洋의 表象으로서의 “獾” 및 “복화술”과 “역도병”의 본질」

蘭明の 東アジア モ더니ズム 研究



目次

序章 李箱文学テクニクの可能性 10

第一部 『東洋』への思念と葛藤 李箱と『昭和帝国』の言説空間

第一章 李箱における横光利一受容
はじめに 25

第一節 「地図の暗室」を浮遊する『上海』
1 受容の基本的位相——「地図」と「指」の射程 26
2 受容の実態（一）——「指」に掛かる「上着」と「心の位置」 30
3 受容の実態（二）「上海事変」の影——挿入された中国語白話文の意味構造 36

第二節 「線に関する覚書」及び「建築無限六面角体」における「上海」
1 「線に関する覚書」 43
2 「線に関する覚書」 51

第三節 自画像の深層——「素宋為題」と「青い大尉」
1 横光利一と朝鮮 55
2 「素宋為題」、「自画像」、「詩第十四号」と横光利一 57

おわりに 65

第二章 『猿』系列詩と一九三〇年代帝国日本の大言説
はじめに 83

第一節 『昭和帝国』の言説空間と『猿』系列詩構想の契機
1 「日本大展覽会」と「ハチ公物語」 86
2 「満州事変」・「上海事変」と祭られる「軍犬」 88
3 李箱と『昭和帝国』の大言説 90

第二節 『麻城』と『亮春通り』——『東洋』の面影・郷愁の行方
1 『猿』に書き込まれたメッセージ 92
2 『場』が語るもの——『東洋』の今の有様を見なまえ 94
3 「オレンジ色の郷愁」の向こう側とこちら側 98

第三節 李箱的「不遇」と「超克」——『腹話術』のプロセスと『逆倒病』の深層
1 『腹話術』のプロセス——『活字印刷所』との対峙 100
2 『逆倒病』の深層——『種子』の政治学との葛藤 104
おわりに 109

발표문 참고 논문

- 김예리,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에 나타난 시각 체계의 다원성 - 새로운 '풍경'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 2012. 2.
- 김예리, 「언어로의 전회와 인문학으로서의 작가론」, 『한국근대문학연구』 27, 2013. 4.
- 김예리,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의 존재미학과 탈근대적 사유 - 김기림의 '시의 회화성'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2, 2015. 4.
- 김예리,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예술 개념의 탈경계적 사유과 그 가능성」 『동아시아 예술담론의 계보』, 너머북스, 2016.